

집단미술요법이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환자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정 길 수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란 일반적으로 유병기간이 2년 이상이고 재발율이 높으며 양성증상보다는 음성증상이 주가 되며 약물치료에 반응이 적은 경향이 있다. Kane (1987)은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 한가지 치료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차원적 치료전략에 입각하여 항 정신병 약물의 유지요법과 함께 다양한 정신사회적 치료기법을 병용토록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사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와 치료자가 일대일로 접근하는 개별적 접근과 집단정신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단치료에는 전형적인 집단정신치료외에도 같은 맥락에서 독창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집단치료들이 있다. 이중 활동요법의 하나로 포함되는 집단미술요법은 집단치료에 미술을 도입한 것으로, 집단미술요법의 매체가 되는 미술은 대상자의 내면에 간직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돕고, 언어로서 부딪히는 감정의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지는 것과 함께 감정교류의 조정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집단미술요법은 사회성의 증진, 자존감의

증진(Green, Wehling & Talsky, 1987)과 대인관계, 현실 검증력, 자기표현력, 자주성 및 자아상의 증진(Moriarty, 1976) 등이 주요 장점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미술요법을 통한 환자들의 자기인식의 변화, 집단원간의 상호작용, 감정의 승화된 표현 증진 등이 중요한 효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Lund, Ormerod & George, 1986). 임상 실무에서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외의 미술요법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사례연구는 많이 있으나 미술요법의 치료적 효과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이상윤, 1998; Honig & Hanes, 1982; Lund 등, 1986; Green 등, 1987)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치료적 간호중재로서 과학적으로 체계화되고 정신과 임상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임상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이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이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의 정신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요약(1999. 8)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정신과 시간강사 (ckilsoo@chollian.net)

3. 연구 가설

가설1) '8주간의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들과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들의 자존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8주간의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들과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들의 정신건강상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1) 집단미술요법

이론적 정의 : 집단미술요법이란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문제를 공유하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창조적 과정-언어화(Verbalization)에 미술제작(art making)을 부가한-을 이용하는 일종의 지지치료(supportive therapy)로서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해 회화(painting), 데생(drawing), 조소(sculpting) 및 콜라주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재료를 제공한다.

조작적 정의 : 일련의 구조화된 미술활동으로, 준비활동, 본 활동, 토론으로 구성되며, 1시간 30분 내외로, 일주일에 두번씩, 총 15회기를 8주간에 걸쳐 시행하는 치료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자존감

이론적 정의 : 어떤 내적 기준이나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아개념의 일부로써(Halter, 1985),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이다(Rosenberg, 1965).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전병재(1976)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정신건강상태

이론적 정의 : 정신적 건강상태란 '일상생활을 언제나 독립적·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정신적 성숙으로 평소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력이 있어서, 원만한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되며, 임상에서는 정신적으로 병적증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민성길, 1995).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Derogatis, Lipman, &

Govi(1973)가 개발하고, 김광일, 원호택, 이정호 및 김광윤(1978)이 표준화한 간이 정신 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의 90분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미술요법의 개념 및 적용

미술요법은 비교적 새로운 치료 접근법임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이후로 다양한 형태와 양식으로 존재해 왔다. 가장 초기의 접근법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미술요법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성숙의 지표로서, 정신과 환자의 재활에 중요한 동인으로서, 다른 형태의 치료 프로그램과 병행하는 하나의 보조요법으로서, 정신병리를 설명하는데 이용되어 왔다(Birtchell, 1973).

미술요법은 정신과 대상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체장애 환자나 정신지체아를 포함하여 자기 증진을 모색하는 정상인들을 대상으로도 이용되어 왔다. 또한 지지적, 현실 중심적인 치료법을 포함하는 부가적인 이론적 접근법이 발전되어 왔으며(Honig, 1977), 정신과 환자들의 수용화(institutionalization)를 억제하고(Gerace & Rosenberg, 1979), 정신과 직원들이 환자에게 대해 가지는 느낌에 민감해지도록 하는데(Misner, 1979) 도움이 되어 왔다.

미술요법은 간단히 말해 치료적 장면에서 미술과 다른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미술요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이는 미술요법 자체가 지니는 양면성때문인데 사람들마다 미술활동을 치료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미술자체의 치유기능을 중요시하는 입장과 미술작품이나 활동을 정신치료의 한 매체로 보려는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미지 표현과정에서 있어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술요법은 미술활동을 심리치료과정의 매체로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통해 치료해 나가는 방법(Riley & Malchio, 1994)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미술작품(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2) 미술요법의 임상적 효과

미술요법 관련연구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

용한 개별사례 및 집단사례연구로서 연구결과는 미술요법 회기동안 대상자들의 활동내용을 관찰하고, 이야기식으로 기술된 대상자들의 참여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얻어짐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입원한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요법을 적용한 후 회기별 내용분석을 통해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미술요법의 임상적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고정자 등, 1998; 최외선 등, 1998). 이들 연구는 정신분열병 입원환자로 구성된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요법을 적용했을 때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고정자 등, 1998), 자기표현력이 향상되어 그 결과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단미술요법을 통해 정신분열병 환자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대인관계가 이루어졌음(최외선 등, 1998)을 보고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상자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을 목표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양적,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미술요법이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일관성있게 보고되었다(이상윤, 1998; 최외선 등, 1998; Moriarty, 1976; Averch, 1982; Borchers, 1985; Marinich, 1993; Hopf, 1993). 그러나 자존감의 증진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그 결과에 차이가 있었는데 일부 양적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증진이 보고되지 않은데 반해(Borchers, 1985; Green 등, 1987), 질적 연구에서는 대부분 자기이해 및 자존감의 증진이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정자 등, 1998; 최외선 등, 1998; Moriarty, 1976).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유사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며, 독립변수는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수는 자존감과 정신건강상태이다.

2. 연구대상 선정 및 표집방법

1998년 6월 8일부터 1998년 8월 23일까지 T평역시의 H병원 정신과에 입원하고 있는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합당한 환자를 선택하여 총 27명을 모집하였다. 그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23명은 동전던지기에 의해 무작위로 실험군 또는 대조군에 배정되어 12명은 8주간의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군이 되었고, 다른 11명은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조군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사후조사에 응한 대상자수는 실험군 10명, 대조군 8명이었다. 탈락이유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경우 1명은 사전조사후 불참의사를 밝혔고 다른 1명은 프로그램 참여도중 갑작스런 퇴원으로 탈락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3명이 퇴원으로 탈락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기준

- (1) 정신과 의사 2인 이상에 의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환자(DSM-IV 기준)로 신체질환이 없고 정신지체가 아닌 환자
- (2) 담당의와 담당간호사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한 자로 판단되고 허락되어 추천된 환자
- (3) 병실생활에서의 기능 수준이 중등도 이상인 환자
- (4) 초등학교 학력수준 이상인 자로 국문해독이 가능하며 질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 (5) 연령은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환자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환자

3.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1998년 6월 8일부터 1998년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와 임상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연구보조원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두집단을 대상으로 동전던지기를 실시하여 집단별로 환자를 무작위 할당하였고,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조사 기간은 동일하였다. 사전조사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2주전에, 사후조사는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1주일이 지난 뒤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은 약물요법과 정신과 병동에서 제공하는 일상적인 간호를 받았으며 실험군만 8주간의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4. 연구 도구

1) 실험처치로서의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의 임상 사례 경험과 Liebmann(1986)의 「Art Therapy For Groups」, 한국미술치료학회(1994)에서 편

찬한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김진숙(1993)의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등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고안하였다(표1 참조).

2)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자존감 정도는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RSES : Rosenberg's Self-Esteem Scale,

<표 1>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 내용

회기	미술활동과제	내용	기대효과
1	오리엔테이션 및 소개/ 애칭짓기	집단미술요법에 대한 소개와 집단규칙 설명/ 자신의 애칭 만들고 소개하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동기 증진/ 자기소개를 통한 상호이해
	자유화 그리기	가장 자신있는 것 그리기	미술활동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자신감 증진
2	A 미블링	미블링 물감을 물에 떨어뜨리고 종이에 찍어내기	미술활동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자신감 증진/서로의 색이 섞이므로써 집단응집력 강화
	B 집단 은유화	소집단별로 자신을 집, 나무, 동물, 섬, 색, 꽃 등으로 표현하여 집단초상화를 벽화로 그리기	또다른 자신의 모습을 집단속에서 확인/공통관점을 통한 집단응집력 강화
3	A 함께 노래부르기/이름 게임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합창하기/서로의 이름이 친숙해질 때까지 돌아가며 이름 말하기	집단내 일치감 증진/집단내 상호관심 및 친밀감 형성
	B 나의 안과 밖(Self-box)	반상자를 이용해 밖은 '남이 보는 나, 안은 '내가 보는 나를' 풀라주로 표현하기	자신의 외면과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도와줌
4	A 함께 노래부르기/이름 디자인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합창하기/ 자신의 이름이나 애칭을 이용하여 디자인하기	집단내 일치감 증진/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재인식 하도록 도와줌
	B 아침상 차리기	풀라주로 특별한 날 아침에 받고싶은 아침상 꾸미기	집중력, 기만함, 기억, 현실감의 유지 및 증진
5	A 집단 데칼코마니	각자 데칼코마니 후 한쪽면에 다른 집단원의 데칼코마니를 겹쳐 찍어보기	색이 섞이면서 주는 느낌이 강해 집단 응집력 강화
	B 자화상	종이위에 자신의 얼굴모습 그리기	자기자신의 재인식
6	A 최근 사건 그리기	지난주 자신을 특히 즐겁게했거나 흥분시켰던 일을 그리기	최근에 경험한 사건의 반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도록 돕고 현실감 유지
	B 진흙 초상화	이크릴판을 액자로 삼아 진흙으로 초상화 만들기(부조상)	제한된 상황에 있는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진흙다루기를 통한 긴장이완과 감정 순화
7	A 진흙 초상화 채색	건조된 진흙 초상화를 물감으로 색칠하기	스스로 표현한 자기모습을 재확인하고 현실감 유지
	B 짝지어 얼굴 색칠하기	둘씩 짝지어 상대방의 얼굴에 페인트로 추상적인 디자인이 나 가면 그리기	집단내 신뢰감과 표현력 증진
8	A 한 그림안에 반대 정서 그리기(사랑과 미움)	한 그림안에 '사랑'과 '미움'의 반대정서 그리기	자기 내면의 감정적 느낌의 표현 증진
	B 마스크 제작 (종이봉투 이용)	종이봉투의 양면을 이용하여 '내가 되고싶은 얼굴'과 '내가 버리고싶은 얼굴' 만들기	선택한 감정상태의 표현을 통해 각자의 현재상황과 연관시켜 그 관계를 탐색하도록 도움
9	A 이완 운동	간단한 신체동작으로 전신을 이완시키기	편안함과 긴장 이완
	B 신체상(그림자 이용)	둘씩 짝지어 큰 종이에 조명에 비친 몸의 외곽선을 그려주고 각자 자신의 몸을 표현하기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심리적 통합을 도움
10	A 돌려 그리기	각자 자신의 그림을 그린 후 서로 그림을 바꾸어 다른 집단원이 그린 그림위에 덧붙여 그리기	상대방의 감정 및 의도를 인식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상호존중감을 증진하고 고립감 해소
	B 자기 광고지	나 자신을 광고하는 광고지 만들기	자존감의 결여로 생긴 부정적 감정을 끌어올리도록 도움
11	A 집단 만달라 벽화	소집단별 만달라 벽화 그리기	집단속의 자기이해, 집단이해, 협동심을 기르도록 도움
	B 집단벽화(자유주제)	소집단별 자유주제로 미리 주제를 정하지 않고 공동벽화 그리기	작품활동과정을 통해 역동적인 협동성 증진/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존중받고 상대방을 인정

<표 1> 계 속

구분	미술활동과제	내용	기대효과
A	소망그리기(동굴화)	동굴밖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지 표현	미래에 대한 의지를 주기 위함
B	집단벽화(공동주제)	소집단별 자유주제로 미리 주제를 정하고 공동벽화그리기	작품활동과정을 통해 역동적인 협동성 증진/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존중받고 상대방을 인정
A	이완운동	간단한 신체동작으로 전신을 이완시키기	편안함과 긴장 이완
B	종이인형과 집단벽화	미래의 자화상을 종이인형으로 표현한 후 소집단별로 종이인형이 있는 집단벽화 만들기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지지받으며 집단원간의 이해와 수용성 증진
A	T-shirts염색	집단심볼을 만들고 그것을 T-shirts에 염색하기	상호이해를 통해 자신과 집단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제공
B	선물 주고 받기	집단원끼리 서로 주고싶은 것을 그리거나 써서 선물하기	상호이해를 통해 자신과 집단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제공
5	작품전시회와 파티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는 기회를 가짐/집단미술요법 경험과정 정리	전체집단에서 변화된 자신을 발표하고 집단원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치료적 종결을 도움

196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그 단일 차원성을 지지 받고 있어 척도로서의 요건이 인정되며(Halter, 1985), 자존감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널리 인정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 5개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을 주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 Symptom Checklist-90-Revision)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 변화는 Derogatis 등(1973)이 개발하고, 김광일 등(1978)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9개 증상 차원(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다'에 0점, '약간 있다'에 1점, '웬만큼 있다'에 2점, '꽤 심하다'에 3점, '아주 심하다'에 4점을 주었다. 전체 90문항이 모두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상태가 불량함을 의미한다.

4명의 정신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Derogatis (1977)의 연구에서 보고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9개 증상 차원별로 살펴보면, 신체화 .86, 강박증 .85, 대인예민성 .83, 우울 .82, 불안 .80, 적대감 .78, 공포불안 .90, 편집증 .86, 정신증 .84로 나타났다. 또한 원호택 (1978)의 연구에서 9개 증상차원별로 나타난 Cronbach's Alpha값은 각각 .72/.83/.84/.89/.86/.68/.81/.69/.67 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자의 인구학적, 일반적 제 특성은 Chi-square test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분류형 자료인 경우 실수와 백분율, 연속형 자료인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서술하였다.
- 3)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전 실험군과 대조군사이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상태의 동질성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 4)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상태의 차이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두 집단간의 동질성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한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3.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의 효과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비교 (N=18)

일반적 특성	전체(n=18)			z	p값	
	평균±표준편차	실험군(n=10)	대조군(n=8)			
연령	36.2± 5.2	36.10± 5.70	36.38±4.75	.000	1.000	
총재원일수	61.1±21.8	64.20±22.93	57.25±21.06	-.981	.326	
총질병기간	8.6±4.0	8.90±3.60	8.25±4.55	-.804	.421	
과거입원횟수	3.2±1.2	3.30±0.95	3.13±1.46	-.625	.532	
성별	전체(n=18)			χ ²	p값	
	수(%)	실험군(n=10)	대조군(n=8)			
성별	남	8(44.4%)	4(40.0%)	4(50.0%)	.180	.671
	녀	10(55.6%)	6(60.0%)	4(50.0%)		
학력수준	중졸이하	7(38.9%)	4(40.0%)	3(37.5%)	.763	.683
	고졸	8(44.4%)	5(50.0%)	3(37.5%)		
	대졸이상	3(16.7%)	1(10.0%)	2(25.0%)		
종교	없음	6(33.3%)	4(40.0%)	2(25.0%)	.450	.502
	있음	12(66.7%)	6(60.0%)	6(75.0%)		
결혼상태	독신	10(55.6%)	4(40.0%)	6(75.0%)	2.340	.310
	기혼	5(27.8%)	4(40.0%)	1(12.5%)		
	기타	3(16.7%)	2(20.0%)	1(12.5%)		

<표 3> 집단미술요법전 두 집단간의 주요 변수에 대한 동질성 비교 (N=18)

변수	실험군(n=10)		z	p값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8)		
자존감	26.30± 6.40	27.50± 5.53	-.402	.688
정신건강상태				
신체화	55.70±11.01	50.88±10.16	-.891	.373
강박증	62.60±13.52	52.75±11.81	-1.381	.167
대인예민성	65.30± 8.88	54.88±16.33	-1.603	.109
우울	61.10±10.68	54.63±14.10	-1.379	.168
불안	59.60±14.45	53.00±15.72	-.801	.423
공격감	54.90±10.56	51.38±16.11	-1.165	.244
공포불안	65.60±20.76	58.00±17.42	-.803	.422
편집증	62.50±14.45	57.38±21.44	-.891	.373
정신증	64.90±12.01	61.75±19.21	-.809	.373
전체심도지수	62.60±11.71	54.63±16.74	-1.425	.154

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집단미술요법후 두 집단간의 자존감 차이값 평균 비교 (N=18)

변수	실험군(n=10)		z	p값
	평균±표준편차	대조군(n=8)		
자존감	0.70±4.42	-1.25±4.40	-.937	.349

<가설1> '8주간의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와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의 자존

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의 자존감 차이값의 평균을 Mann-Whitney U test로 비교한 결과는 <표4>와 같다. 검증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평균 자존감 차이값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 = -.937, p = .349). 따라서 <가설1>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2> '8주간의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와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의 정신 건강상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의 정신건강상태 차이값 평균을 Mann-Whitney U test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집단미술요법후 두 집단간의 정신건강상태 평균 비교
(N=18)

변수	실험군(n 10)	대조군(n 8)	z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신건강상태				
신체화	0.00± 5.03	6.75±18.40	-.66	.507
강박증	-7.60±11.12	5.88±13.61	-2.05	.045
대인예민성	-12.0± 8.73	7.00±18.10	-3.22	.009
우울	-5.20± 7.35	1.38±19.59	-.94	.350
불안	-4.40± 9.90	4.88±19.66	-1.55	.120
공격감	-5.20±11.88	2.75±13.34	-1.07	.284
공포불안	-3.60±15.50	3.88±22.77	-.90	.372
편집증	-0.60±11.92	3.00±21.58	-.32	.755
정신증	-4.90±11.82	-0.25±15.98	-.56	.582
부가항목	-0.90± 3.21	3.00± 4.47	-1.55	.117
전체심도지수	-5.90± 8.36	5.13±19.73	-1.85	.069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평균 정신건강상태 점수 차이를 9개 기본 증상 차원별 평균 점수와 전체심도지수 평균 점수로 살펴본 결과 9개 기본 증상 차원중 강박증 증상 차원(z = -2.005, p = .045)과 대인예민성 증상 차원(z = -2.622, p = .009)의 차이값 평균점수가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논 의

1.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 환자에게 제공된 집단 미술요법은 대인예민성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미술요법이 사회적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Moriarty, 1976; Nassar, 1981; Borchers, 1985; Green et al., 1987; Hopf, 1993; Marinich, 1993; Sherman, 1996). 그러나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된 문헌이나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제공된 미술요법 프로그램의 내용, 미술요법의 적용방법, 연구방법, 효과측정 변수가 서로 다르므로 인해

집단미술요법 중재 효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술요법을 치료적 중재로서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존감 증진이 보고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자존감 정도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사후조사 점수는 기대되는 방향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대조군의 경우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약물요법과 병행하여 적용된 집단미술요법은 제한된 환경내에서 생활하는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집단과정을 통하여 중요롭고 고기능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간호사가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치료적 간호중재로서 개별화된 지지적 미술요법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가 간호연구, 교육, 실무에 미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집단미술요법의 치료적 잠재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간호학생이나 정신과 간호사 혹은 정신보건간호사의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입원 대상자들과 집단치료에 활용가능한 집단미술요법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셋째, 간호대상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자적인 치료적 간호중재로서 집단미술요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8주간의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을 만성 정신분열병 입원환자에게 적용하여 자존감과 정신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며, 연구의 대상은 T시의 H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중인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로 8주간의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10명과 대조군 8명이었다.

본 연구의 실험처치인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 총 15회기를 8주간에 걸쳐 실

시하였다. 매회기의 핵심 활동은 준비 활동, 본 활동, 토론으로 구성하였고 회기별 소요시간은 90분 내외였으며 프로그램 실시장소는 H병원 집단요법실이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6월 8일부터 동년 8월 23일까지였다.

측정된 자료는 SPSSWIN 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기술통계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집단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실험군의 강박증과 대인예민성 증상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자존감과, 정신건강상태의 강박증과 대인예민성 증상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하위증상 차원의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의 손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여되고 부적절한 환자들에게 집단미술요법은 가치있는 간호중재이고 임상실무자의 입장에서서는 직원의 효율성(staff efficiency), 환자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의 효과 및 삶의 질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 회기수를 8회기나 10회기로 줄여 입원기간이 짧은 정신과 환자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병동활동으로 활용해볼 것을 제언한다.
- 2) 미술치료집단의 구성시 미술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집단역동을 위해 집단원수를 6-8명 정도로 제한해볼 것을 제언한다.
- 3) 연구의 대상을 다양한 진단군이 혼합된 이질집단이나 입원환자 집단뿐만이 아닌 외래환자 집단으로 달리하여 집단미술요법의 효과를 검증해보거나 여러 동질집단별로 집단미술요법을 실시하여 집단별 효과를 비교해볼 것을 제언한다.
- 4)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가 지각한 집단미술요법 프로그램의 치료효과 및 치유인자(therapeutic factor)를 조사하고, 향후 양성증상, 음성증상과 같은 다른 변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하여 미술요법 프로그램의 적용 및 개발을 위한 자료로 삼을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고경자, 이미옥 및 이금순 (1998).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기이해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사례. 미술치료연구, 5(2), 93-124.

김광일, 원호택, 이정호 및 김광윤 (1978).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 정상인의 반응특성. 신경정신의학, 17, 449-458.

김진숙 (1993).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민성길 (1995). 최신정신의학(제 3개정판). 서울 : 일조각.

이상윤 (1998). 미술요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간호중재가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우울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 King의 목표성취이론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원호택 (1978).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Ⅱ. 한양대학교논문집, 12, 457- 74.

전병재 (1976).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9.

최희선, 박현미 및 김지현 (1998).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 연구. 미술치료연구, 5(2), 163-190.

한국미술치료학회 편 (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 동아문화사.

Averch, S. A. (1982). An Art Therapy Curriculum and Teaching Strategy for Schizophrenic Adults in a Day Treatment Setting. Thesis (EDD.)--Harvard University, 294p.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05), B, 1604.

Birtchnell, J. (1973). An Analysis of the Art Productions of a Psychiatric Patient who was Pre-Occupied with his nose. 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 12, 211-224.

Borchers, K. K. (1985). Do gains Made In Group Art Therapy Persist? : A Study with Aftercare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 23, 89-91.

Derogatis, L. R., Lipman, R. S., & Govi, L. (1973). The SCL-90 ;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 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cology Bulletin, 9, 13-27.

Gerace, L. & Rosenberg, L. (1979). The Use of Art Prints, in Group Therapy with Aftercare Patient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Art, 17, 83-86.

Green, B. L., Wehling, C., & Talsky, G. J. (1987). Group Art Therapy as an Adjunct to Treatment for chronic Outpatients. Hospital & Community Psychiatry, 38(9), 988-991.

Honig, S. (1977). Art Therapy used in Treatment in Schizophrenia. Art Psychotherapy, 4, 99-104.

Honig, S. & Hanes, K. M. (1982). Structured Art Therapy with the Chronic Patient in Long-term Residential Treatment. The Arts in Psychotherapy, 9, 269-289.

Hopf, G. I. (1993). Group Art Therapy with Schizophrenics in a Drop-In Center. Masters Thesis (M.A.)--Concordia University(Canada), 148p. Masters Abstracts International, 32(03), 1066.

Kane, J. M. (1987). Treatment of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13, 147~170

Liebmann, M. (1986). Art Therapy for Groups : A Handbook of Themes, Games and Exercises. Cambridge, Massachusetts : Brookline Books.

Lund, C., Ormerod, E., & George, K. (1986). Art Group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9, 512-515.

Marinich, J.(1993). Art Therapy : Its use in Hospital Treatment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Masters Thesis (M.A.)--Ursuline College. 99p. Masters Abstracts International, 31(04), 1937.

Misner, S. J. (1979). Using Art Therapy Techniques in Staff & Patient Education. Nursing Outlook, 27, 536-539.

Moriarty, J. (1976). Combining Activities and Group Psychotherapy in the Treatment of Chronic Schizophrenia. Hospital & Community Psychiatry, 27(8), 574-576.

Nassar, P., Kremberg, M. R., & Corso, V. (1981). Inpatient Art Therapy :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for Training. Schizophrenia Bulletin, 7(2), 308-315.

Riley, S. & Malchlo, C. (1994). Integrative Approaches to Family Art Therapy. Chicago : Magnolia Street Publishers.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erman, J. E. (1996). Group Art Therapy Interventions with Adults in Psychiatric Setting. Masters Thesis (M.A.)-- Ursuline College, 287p. Masters Abstracts International, 34(04), 1684.

-Abstract-

Key concept : Group Art Therapy,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Self-esteem, Mental health status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Status in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Chung, Kil Soo*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8-week, 15-session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status in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The sample consisted of two groups of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10 patients with an average of total disease duration of 8.90 years who participated in a 8-week group art therapy program, and 8 comparison subjects with an average of total disease duration of 8.25 yea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A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o assess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status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of the 8-week, 15-session group art therapy program. The time points for obtaining data were matched for both groups.

The effectiveness of the 8-week group art therapy program was assessed by Rosenberg's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 and SCL-90-R(Derogatis et al, 1973). SPSSWIN 8.0 was utilized for data entry and analysis employing Mann-Whitney U test.

* Part 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e followings : (a)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wo groups in self-esteem and (b)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in obsessive-compulsive symptom dimension and interpersonal sensitivity symptom dimension on the SCL-90-R than the comparison group after participating in the group art therapy program.

In conclusion, the findings show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group art therapy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patients with lack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 interaction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